

한중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공동연구 출장보고서

(‘18.07.23, KDI)

1 출장 배경 및 목표

1. 출장 배경

- 대통령 국민 방중 계기, 한·중 재무장관간 회담(17.12.15)에서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공동연구는 한국 기획재정부와 중국 재무부가 주관하며, 양국의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과 중국재정과학연구원(CAFS, Chinese Academy of Fiscal Sciences)이 연구를 주관하는 작업반을 구성함.
 - 한국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정책조정국이 혁신성장 및 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국이 소득주도성장을 관리하며, 한국개발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연구 전반을 담당함.
 - 중국측은 재무부에서 연구 전반을 관장·기획하고,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이 연구 업무를 수행함.
- 한중 공동연구팀은 양국이 당면한 경제·사회적 도전요인을 검토하고, 정부의 정책 대응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증에 기반한 정책권고안을 도출하기로 함.
 - (혁신성장과 구조개혁) ①산업 및 경제전반의 혁신촉진 및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②혁신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방안, ③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함.
 - (소득주도 성장방안) ①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및 방안, ②주요 생계비 경감을 통한 소득-성장의 환류 방안, ③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지속성장 방안을 연구함.

2. 출장 목표

- 이번 중국 출장(‘18.06.25~‘18.06.29)은 공동연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현장 시찰, 중국 지방정부 기관들과의 좌담, 중국재정부 및 중국재정과학연구원과의 의견 교류 및 회의 진행 등을 목표로 함.
-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의 연구진들과 함께 절강대학교 공업기술전화연구원, 알리바바 본사, 닝보 신러조선소를 시찰하였고, 절강성정부 산업부, 닝보시 재정세무국과 좌담을 진행하였으며, 중국 재정부 및 중국재정과학연구원과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함.

2 출장 개요 및 일정

- <한중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 5명은 '18.6.25부터 '18.6.29까지 4박5일 동안 중국 항저우, 닝보, 베이징을 방문하였으며, 출장 일정 모두 중국재정과학원 연구진과 동행함.

○ 한국개발연구원 출장자 명단

소속	성명	직위
KDI 경제정보센터	서중해	경제정보센터 소장
KDI 지식경제연구부	최경수	지식경제연구부 부장
KDI 지식경제연구부	안상훈	선임연구위원
KDI 지식경제연구부	구자현	부연구위원
KDI 경제정보센터	박정연	전문연구원

○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출장 동행자 명단

소속	성명	직위
중국재정과학연구원	Fu Zihua	Vice President
CAFS Resource and Environment Center	Chen Shaoqing	Director
CAFS Resource and Environment Center	Fan Yixia	Research Fellow

○ 출장 일정

날짜	출장 일정	주요 면담자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12시20분)→항저우(13시25분) (서중해) • 인천(12시25분)→항저우(13시45분) (최경수, 안상훈, 박정연) • (오후) 절강대학교 공업기술전화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중해, 최경수, 안상훈, 박정연
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절강성정부 산업부 • (오후) 알리바바 본사 • 기차이동: 항저우(20시02분)→닝보(21시0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중해, 최경수, 안상훈, 박정연
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닝보 신리조선소 • (오후) 닝보시 재정세무국 • 비행기 이동: 닝보(19시45분)→베이징(22시10분) * KDI 구자현: 인천(12시25분)→베이징(13시45분), 기획재정부 최지영 과장, 전종현 사무관과 함께 중국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중해, 최경수, 안상훈, 구자현, 박정연
6.28 ~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중국 재무부 국경사(國經司), 종합사(綜合司) • (오후) 중국재정과학연구원과 학술회의 • 베이징(6월28일, 21시40분)→인천(6월29일, 00시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중해, 최경수, 안상훈, 구자현, 박정연

3 출장 세부 내용

1. 절강대학교 공업기술전화연구원

(浙江大学 工业技术转化研究院,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of Zhejiang University)

□ (방문 장소) 절강대학교 공업기술전화연구원, 절강대학교 공업기술전화연구원 자금 혁신타운* 회의실

* 자금혁신타운: 영문명은 Zijin Innovation Town, 중문명은 紫金众创小镇이며, 자금(Zijin, 紫金)은 지역명

□ (주요 면담자) Liu Jingqing(부원장), Wu Luxia(자금혁신타운 전략합작부 프로젝트 매니저)

□ (기관 목표) 절강대학교 공업기술전화연구원은 혁신·창업 생태계의 조성과 과학기술 성과의 확산을 2대 주요 목표로 함.

- 시진핑 국가주석의 “절강에서 입지를 굳혀, 전국으로 향하고, 세계로 나아가라 (立足浙江, 面向全国, 走向世界, 입죽절강, 면향전국, 주향세계)” 정신을 실천하여, 절강성 내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혁신의 요지로 나아가고자 함.

□ (주요 역할) 기술이전의 창구, 최고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혁신·창업 플랫폼 제공, 혁신 산업 육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기술이전의 창구) 절강대학교 공업기술전화연구원은 과학기술연구원, 국가대학과 학기술원 등과 함께 ‘절강대학교 과학기술성과전환 촉진위원회’를 만들어, 과학기술의 성과를 절강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절강대학교 내 중국 최고 수준의 학생과 교수 및 연구진을 활용하여 연구소마다 200~300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 대학 중 연구비 지원 방면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음.
- (혁신·창업 플랫폼 제공) ‘혁신 기술 연구-개발-과학기술형 창업기업 설립 및 운영’의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혁신산업의 육성) 절강성은 신기술 기업과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신기술 기업 1천여개, 기술혁신 중소기업 6천여개 육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절강대학교는 재학생, 졸업생, 교수진, 연구진의 혁신·창업활동을 통해 목표 달성에 앞장섬.

□ (주요 성과) 절강대학교의 혁신·창업 성과를 ‘대학→지역→국가’로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학교 발전) 중국 내 특허권 1위(특허권 1억 위안화 사례도 있음), 인재·연구기관·기업

간의 협력활동을 통한 자체 능력 향상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른 이익이 절강대학교의 학생, 연구진, 교수진, 학교 측에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과창출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음.

- (지역 발전) 절강대학교의 인재들이 절강성 내 혁신 기업에 취업하거나 혁신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고, 인재·연구기관·기업 간 협력하여 혁신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함께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큼.
- (국가 발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거점 지역에 혁신 단지를 확장하여, 인재 교류와 기술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저우, 빈하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 (특징) 다른 대학이나 지역에도 절강대학교 공업기술전환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 혁신·창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절강대학교는 운영 정책, 지원 방법 등에서 차별됨.

- (수익배분) 공업기술전환연구원, 국가과학기술원의 원장은 기업의 CEO의 직책을 맡아 실제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진과 학생 또한 연구개발 활동의 수익이 실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특허권 취득 후 기업을 설립하면, 교수와 학교는 각각 지분을 보유하여 이익은 모두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데(교수는 70%, 학교는 3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음.), 기업 활동에 참여한 교수진은 기업 운영이 실패하더라도 3년 후 학교로 돌아와 교수직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절강대학교는 학교 측이 직접 운용한다는 점에서 칭화대학교 등 다른 일류대학교의 혁신단지와 크게 구분되는데, 타대학교들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투자하고 운영하므로 학교 측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 지속적으로 노력할 유인이 적음.
- (자금혁신타운) 특히, 자금혁신타운은 대학교 중 유일하게 절강대학교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금혁신타운의 목표는 기술 집약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인재와 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가 직접 창업교육 및 창업 기업 육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R&D 센터도 운영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 특허권 교육 등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타 기관처럼 교육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작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함.
- (자금 조달) 절강성 지방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 대학의 방향성과 정부의 방향성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정책 충돌, 자금 조달의 방면에 대해서는 염려가 전혀 없는 편임.

2. 절강성정부 좌담회

- (주요 참석자) 절강성정부 측은 Jin Huiqun 절강성 재정청 부청장 외 9명의 처장급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세부 명단은 아래 표에 기재함.

이름	소속 및 직책	이름	소속 및 직책
Jin Huiqun	절강성 재정청 부청장	Meng Hao	상무청 대외협력처 부처장
Shen jinyang	발전개혁위원회 외자처 처장	Wu Xinfang	재정청 기업처 부처장
Chen Wangjin	경제정보화위원회 산업처 부처장	Fu Cailian	재정청 과학교육처 부처장
Zeng Xiaopeng	과학기술청 국제과학기술협력처 처장	Chen Yanyan	재정청 금융청 부연구원
Pan Shenbiao	과학기술청 법규처 부처장	Chen Youfang	재정청 정책연구실 부주임

- (방문 목적) 절강성은 중국 내 혁신 분야 최고의 성(省)으로, 내몽고, 동북3성, 홍콩, 브라질 등 국내외에서도 롤모델로 학습하고자 하는 바, 우리 연구진도 중국 절강성을 직접 시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절강성은 한국의 전라남도(20여년 간 자매결연), KOTRA, KITA 등과도 활발히 교류·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전력(태양열 에너지 관련 협력), 한국타이어, 효성(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절강성 내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기업으로 알려져 있음.

- (절강성발전개혁위원회) 전통제조업 개혁, 신기능 배양, 창업혁신 추진, 투자 확대,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공급측면에서의 혁신성장과 구조개혁을 달성하고자 함.

- (전통제조업 개혁) <절강성 전면 전통제조업 개조향상 행동계획>(2017-2020)을 제정하여 인터넷+ 등과 전통제조업을 융합시켜 발전시키고, ‘중국제조2025’를 실행하여 전통제조업의 개혁을 실행하고자 함.

- (신기능 배양) <절강성 신에너지배양 행동계획> 등의 정책을 통해 정보, 환경보호, 헬스, 레저, 금융, 문화, 첨단장비 등의 산업발전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 AI,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료 등의 전략성 신흥산업을 지원함.

- (창업혁신 추진) 혁신 플랫폼 구축, 혁신 프로젝트 건설, 혁신 인재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창업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대표적 사례로, 천인계획을 통한 인재유치, ‘항저우 국가자주혁신시범단지’와 빈장구(滨江区) ‘천당(天堂) 실리콘밸리’ 등의 혁신단지 건설, 알리바바와 절강대학 등과 ‘국가 쌍창시범기지’ 건설 등을 추진하였음.

- (투자 확대) 411 중대항목* 실행, 절강 대만구* 건설 등을 통해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하고 목표 투자액을 달성하고자 함.**
 - * 411 중대항목: 산업구조 고도화, 기초설비 개선, 도농건설, 공공서비스 개선 등의 공정을 통해, 중점 항목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목표이며, 2017년 기준 1,291개 항목에 1.6조위안을 투자함.
 - * 절강 대만구(大湾区): 저장성 생산력의 주요지역으로 중국 현대화 건설의 선행지역. 전 세계 디지털 경제혁신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임. 교통, 교육, 의료, 양로, 문화관광, 테마타운, 산업단지 등에 1조 이상의 투자계획
-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성장-기업상장-합병의 발전구도를 계획하는 ‘봉황행동(凤凰行动)’ 과 중소기업의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 정교함, 특성화, 참신성)’ 발전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 (과학기술청) 창업·혁신의 플랫폼 구축, 혁신산업 육성,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혁신추진과 인재, 첨단기술, 지적재산권 취득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음.**
 - 항저우 성서과창*,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국가 혁신형 산업단지(항저우, 닝보 등) 등을 건설하고, **블록체인 등의 주요 첨단기술, AI,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등의 영역에 적극 투자하여 육성하고자 함.**
 - *항저우 성서과창(城西科創): 항저우 서부(절강대학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의 요지로, 절강성 15개성급산업단지 중 하나임.
 - 절강성 과학기술청은 ‘한중과학기술혁신 성과 및 제품 전시회(2012년, 한국 교과부와 공동 개최)’, ‘한중산업혁신 협력회의(2015년)’, ‘절강-경기도 기술대응 활동(2017년)’, ‘한중지적재산권 국장회의(2017년)’ 등을 통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 해왔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
- (경제정보화위원회) 경제정보화위원회에서는 절강성의 강점으로, 큰 산업규모, 다수의 산업단지, 혁신 생태계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수치를 보여줌.
- (상무청 대외협력처) 절강성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숫자와 규모는 한국기업이 절강성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므로, 절강성기업이 한국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
- (재정청) 혁신성장과 구조개혁을 위하여, **과학기술 재정시스템 개선, 창업·혁신 투자시스템 구축(정부산업기금, 과학기술 금융지원, 담보대출 제도 등), 산업혁신시범단지 지원 시스템 마련, 스타트업기업 혁신생태계 조성(금융투자 자문 등의 공공서비스, 정부 구매서비스 등) 등의 정책을 구축·재정비함.**

□ (기타 회의 내용) 성(省)차원의 정부기관과 진행된 회의이므로, 각 부서에서 사전에 준비한 발표 외에도 절강성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응답이 진행됨.

질문 내용	답변 내용
• 절강성의 소득편차 수준은?	• 성(省)에서 1인당 소득이 최고인만큼, 소득편차 또한 가장 낮음.
• 절강성의 고령화 문제는?	• 전체 인구 6,000만명 중 60세 이상이 13%로, 중국 전국 평균 수치와 비슷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민영 경제의 발달로 젊은이들과 해외 인력들이 풍부한 것을 들 수 있음. 단기 내에 고령화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베이징의 창업환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베이징이 수도권만큼 창업자원이 많이 집중되어있지만, 절강성은 민영기업, 중소기업이 많아 산업화 기술전환 등에서 특별한 강점이 있음.
• 절강이나 조선은 중국 전체로서는 과잉생산일텐데, 절강성에서 중단하면 손해가 아닌가?	• 일부 손실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판단함. 도태되는 산업의 기업은 미래를 생각하여 강제 폐쇄하는 경우도 있음.
• 자금 지원은 성정부 차원인지, 중앙 정부 차원인지?	• 대부분 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성이 벌어들인 수입을 정부에 헌납하는 시스템임.
• 성차원에서 사업을 할 때, 원래 계획과는 달리 실패하거나 손실이 난 경우가 있는가? (한국의 경우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제도 있음.)	• 3년 후 평가하여 효과가 없거나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감한 별점, 징벌 조치를 내리며, 업무 추진 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 허위사실이 발각되면 모든 것을 회수한 후 블랙리스트에 올림.

3. 알리바바 방문

□ (방문 장소) 절강성 항주시 소재, 알리바바 본사

□ (주요 참석자) 알리바바 측은 Tan Chongjun 알리연구원 부원장 외 알리바바 4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였음.

이름	소속 및 직책	이름	소속 및 직책
Tan Chongjun	알리연구원 부원장	Lee Mingi	티몰글로벌 한국 General BD
Gong Zhengyuan	재정세무관리부 Senior Manager	Guo Weijie	DAMO 운영 전문가
Shi Hongzheng	공공사무부 Senior Manager		

- (기관 설명)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B2B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운영체제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B2B를 담당하는 알리바바닷컴 인터내셔널, 알리바바닷컴 차이나와 B2C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마켓 플레이스, 티몰닷컴 등의 계열사가 있음.
 - 아마존과 다른 점은, 아마존은 직접 사입해서 판매하는 B2B 방식이며, 알리바바는 닷컴의 플랫폼만 제공하고 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임.
- (3대 전략) 알리바바는 ①글로벌화, ②모바일화, ③농촌화를 3대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농촌화는 소비자와 제조업, 농산물 보유자의 데이터를 구축해 중국 전역에 24시간 내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천현만촌(千县万村)’의 명칭을 붙임.
 - ‘천현만촌 프로젝트’는 현 단위의 전자상거래 센터 1,000개와 농촌 서비스센터 10만 개 설립을 목표로 하며, ‘타오바오 농촌 플랜’은 천현만촌의 핵심사업으로 마을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 타오바오에 가입할 경우 이 마을을 타오바오촌으로 지정해 적극 지원함.
- (다모원* 설립 및 운영) 알리바바가 기초과학과 테크놀로지 영역에서 꾸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글로벌 실험실, 연합연구실, 글로벌 이노베이션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양자계산, 차세대 HCI, AI칩, 임베디드시스템, 블록체인 등의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 다모원: 达摩院, DAMO, The Academy for Discovery, Adventure, Momentum and Outlook의 약자
- (티몰글로벌*과 한국) 한국의 경우 약30개의 유통사와 14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하고 있고, 중국 내 지우링허우(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하며, 뷰티, 펄스널케어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유아동 부문에서는 실적이 부진한 편임.
 - * 티몰/티몰글로벌: 티몰은 중국 현지에 등록된 기업이거나, 2~3년 동안 중국에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티몰 글로벌을 오픈하였으며, 현재 74개국과 18,000개 브랜드를 거래하고 있음.
 - (수수료 구조) 입점에는 15만~25만 위안의 보증금, 매년 약 10만 위안의 연 회비, 판매건수마다 1%의 수수료, 카테고리마다 2~3%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글로벌티몰이나 티몰의 연회비와 수수료는 저렴한 편이며, 아주 낮은 수준의 연간 매출액만 달성하더라도 연회비는 면제해주고 있음.
 - (뷰티브랜드) 140여개의 브랜드 중 70여개가 뷰티 브랜드이며, LG생활건강과 아무레퍼시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형 브랜드들이 입점하여 한국 대비 100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함.
 - 한국의 뷰티 상품들은 전체적으로 강세이나, 최근 태국이나 일본의 상품들이 급성장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유아동브랜드)** 유아동 부문에서 중국 진출이 부진한 이유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다가, 주로 중간 수준 퀄리티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국상품 향후 전략)** 뷰티를 제외한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인재가 부족하고, 한국기업들도 빨리 돈을 벌고 철수하려는 단기적 목표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티몰글로벌 한국 부문에서는 뷰티 외 다른 카테고리에 대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기타 회의 내용)** 알리바바 직원들과 토론을 진행함.

질문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리바바는 설립 이후 많은 계열사들을 설립하여 영역을 확대해 나갔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정부의 규제가 있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가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혁신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는 없음. 다만, 불량품 등 상품 질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겪은 어려움처럼, 알리바바도 기존의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규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신사업이 시작되나, 중국은 그렇지 않음. 중국 정부는 규제가 있기는 하나 세세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정부가 협조적인 상황임, 알리바바는 소비자가 가장 우선인 사업이므로, 사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때에는, 새로운 사업이 시장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화 전략과 관련하여, 중국 서부에 있는 농민이 항주에 있는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항주 농민이 겪는 문제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임. 알리바바는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싸고 빠르게 많이 팔 수 있는지를 생각함. 또한 중국은 작은 내수시장이 아니므로 항주와 서부 모두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신러조선소 방문

- **(방문 장소)** 절강성 Ningbo시 Shangshan현 소재, 신러조선소
- **(기관 설명)** 신러조선소는 47년의 역사를 지닌 항저우 Ningbo시의 대표적인 조선업체로, 케미컬선(3,600톤급, 7,500톤급, 16,500톤급, 19,900톤급), LNG선, 벌크선 등의 선박을 제조함.
- **(기술개발)** 신러조선소는 절강대학, Ningbo대학 등 유수의 대학교와의 협력, 절강성 과학기술청이 허가한 해상시험 과학기술혁신 플랫폼 활용, Ningbo시 기업공정기술센터

활용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에 꾸준히 노력함(2017년 기준 838.9만원, 매출액 대비 3.85%).

- LNG선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절강대학교, Ningbo 대학교 연구원에서 용접 관련 기술을 지원받고, Ningbo R&D 센터와 중국 전역에서 인재를 초빙하여, 제작할 수 있었음.
- 조선업의 특성상, 성정부나 시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였으나, 일부 지원금과 보조금의 지원을 받았는데, ‘상품과 브랜드’가 아닌 ‘보유 기술과 특허’가 지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생각함.

5. Ningbo시 재정국 좌담회

- (주요 참석자) Ningbo시 재정국 측에서는 Zhu Peinan Ningbo시재정국 부국장 외 Ningbo시 재정국 4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였음.

이름	소속 및 직책	이름	소속 및 직책
Zhu Peinan	Ningbo시 재정국 부국장	Zhou Haiming	Ningbo시 재정국 산업기금반 주임
Tong Honggen	Ningbo시 경제정보위원회 부주임	Wang Xiaoli	Ningbo시 재정국 과학연구실 주임
Gao Haijun	Ningbo시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처 처장		

- (지역 특징) Ningbo시는 저장성 해안에 있는 항구도시로, 처음으로 공업구조전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동북의 용정과 교류를 맺는 등 타지방과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회의 내용) 시(市)차원의 정부기관과 진행된 회의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

- (공업구조전환 시범지역) Ningbo시(Ningbo시, 宁波市)는 저장성 해안에 있는 항구도시로, 공업구조전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음.
 - Ningbo시에 조선사업과 관련된 현지기업은 70여개 정도 되나, 수출이 30%정도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조선사업은 GDP에 기여할 수 있는 비중이 낮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음.
- (혁신에의 노력) Ningbo기술국 운영,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산업 권장, 기업의 정보화 정책 개선, 인재유치 노력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함.
 - 절강대학교가 위치한 항저우와 달리, Ningbo는 고급인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
 - 인재의 연봉을 맞추어줄 수 없을 경우 주식으로 보상하기도 하며, 인재를 등급별로 나누어 최고 1억위안까지 지원해주는 등 인재유치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6. 중국 재정부 좌담회

- (주요 참석자) 한국 기재부 최지영 과장, 기재부 전종현 사무관, 중국 재정부 국경사(國經司), 재정부 종합사(綜合司)
- (회의 장소) 베이징 중국 재정부 회의실
- (회의 내용) 한국 기재부, 중국 재정부, KDI, CAFS가 현재까지의 연구 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함.
 - (기재부) 한중 양국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양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람.
 - 한중 양국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향후 정책안에 대해 함께 모색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한국은 혁신 성장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설립하여 추진 중이고, 중국도 중관촌이나 절강성 혁신단지 등의 우수 사례가 많은 상황인 바, 양국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하여 공동의 정책과제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람.
 -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한중 벤처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의 중관촌, 대학, 기업, 재정부 등과 협력할 수 있음.
 - 향후 일정이 2018.9월에 2차 실무회의를 하고, 2018.11월에 최종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양국 장관 보고 후, 기업, 연구기관, 학계를 초청해서 성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를 제안함.
 - (CAFS) 본 프로젝트는 중국 재정부 장관의 지지 하에, 재정부 국경사, 종합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기재부와 KDI의 긴밀한 협조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큼.
 - 양국이 공감대를 구축하고, 공동 스타트업 지원, 공동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교류 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구가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함.
 - (KDI) 양국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며, 이번 출장은 CAFS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양국 공동연구에 필요한 유익한 성과물을 얻었음.
 - 절강성 방문을 통해,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관계를 맺어 그 성과를 국가 차원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이 교훈적이었음.

- **닝보시**는 동북에 있는 용정과, 저장성은 한국의 전라남도과 교류를 맺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활성화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알리바바** 방문시 물류시스템, 판매망 등을 이용해 농촌지역까지도 아우르는 사례를 보았는데, 이 또한 한국이 고려해볼 만한 모델임.
- 인터넷+ 정책 등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협력할 공간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예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도 알리페이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한국인이 중국에서도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면 양국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임.

7. 한중 공동연구 컨퍼런스

(방문 장소) Beijing Tangla Hotel 회의실

(주요 참석자) 중국 재정부, CAFS, 한국 KDI가 함께 진행함.

이름	소속 및 직책	이름	소속 및 직책
Ma Yu	재정부 종합사 경제예측처 부처장	Wang Zhigang	거시경제연구센터 부주임
Teng Yunfei	종합사 제도처 부처장	Yu Changge	재정 및 국가관리 연구센터 연구원
Wu Mengli	국제경제관계사 다변이처	Fan Yixia	자원환경연구센터 연구원
Liu Shangxi	CAFS 원장	Zhao Shiping	자원환경연구센터 부연구원
Fu Zhihua	부원장	Xiang Yanjing	자원환경연구센터 연구원
Chen Shaoping	자원환경연구센터 주임	Li Yanjing	과학연구조직처 국제협력 전문가
Cheng Yu	과학연구조직처 부처장	Xiao Qiongqi	금융연구센터 연구원

(회의 내용)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심층 발표와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공동 보고서에 대한 형식과 작성 시기에 대하여 합의함.

- 양국은 산업화를 통한 고성장을 실현하고 구조고도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된 유사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당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
 - ①균형적인 소득분배, ②성장 지속의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양국 정부의 연구진은 정책 경험과 대안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정책 권고를 제시할 수 있음.
 - 한중 양국의 혁신성장 관련 정책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및 디지털혁명 등의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실행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에 연구진은 정책 권고 제안 및 협력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음.

- 이번 작업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향후 다음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 해볼 필요가 있음.

<후속 작업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

- ①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른 경제발전 전략 및 재정의 역할
- ②새로운 통상 환경 조성
- ③제조업 교역 및 투자 이후, 서비스 부문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
- ④남북한 관계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
- ⑤인적 교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 발굴 (KAIST, 절강대학교 등 양국의 선도대학 간 교류 활성화)
- ⑦인구 고령화, (농촌)지역 공동화, 삶의 질 개선 등 산업화/고도성장 이후 경제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는 구조적 도전과제

- 양국의 연구는 우선 각국에서 따로 연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며, 특히 정부에 실용적인 정책 권고를 할 수 있어야 함.

- 보고서의 구성, 목차, 내용, 분량 등 세부적인 사항들도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 전에 대략적으로 합의하기로 함.

□ (기타 토론 내용)

질문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민간부문의 조직혁신을 위해 정부가 어떻게 지원/관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챗, 알리페이, 디디 등의 혁신기업을 사례로 보면, 초기에는 정부의 관리감독이나 규제가 느슨한 편이며, 위험이 감지되면 관리의 강도를 높임. 하지만 후기에도 기업의 이익과 관리감독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즉 기업의 발전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에서 디디를 도입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택시업계가 제소하면 불법임.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 중국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인 택시업계가 정부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정부차원에서 조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리바바는 왜 항주에서 발전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인 마윈이 투자를 받을 때에 베이징 등 다른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였으나, 항저우에서 적극 협력함. ⇒ <u>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u>